

대행 스님

세상만사가 다 한 가지, 마음의 핵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광명선원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강당은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건립한 것입니다. 모든 실생활 속에서 인연에 따라 주어지는 대로 찰나찰나 바꾸어 돌아가면서 마음과 마음이 모두 계발이 되고 조화를 이루고, 또 정신계의 창조력을 기르면서 창조를 해냅니다.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다 창조인 것이고 계발인 것이고 바로 발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실 때에도 바로 실천과 궁행을 위해서, 진실한 오늘을 위해서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물과 흙과 불과 바람의 인연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형상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도 생명이고 흙도 생명이고 바람도 생명이지만 그 바람과 흙과 물이 한데 합쳐져서 온기가 생기고, 온기가 생김으로써 바로 불과 바람, 흙, 물이 한데 합쳐져서 생명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생기기 이전에는 모두 암흑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흑 속에서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한데 합쳐져 온기가 생기니까 생명체가 나오고 그 생명체들이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혼자서는 이룰 수 없고 혼자서는 창조해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연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해내면 좋은 창조력을 이루고, 만약에 나쁜 악성으로 인연을 지어서 나간다면 악행이 돼서 돌아옵니다.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으면 좋은 업보가 오는 것이고 나쁜 인연을 지으면 나쁜 업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인연을 지어서 행하고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듯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시주를 해서 건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신계의, 내면세계의,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공덕이 될 것이고 '내가 시주를 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주었다. 내가 얼마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모두가, 각 혹성들이 한데 합쳤다가 흩어지고 흩어지고 합치고 하면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또 하나가 스무 개가 되고 스무 개가 바로 만 개가 되고 만 개가 십만 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혹성이라는 게 벌어졌고, 별성이라는 자체는 바로 마음의 불씨인 것입니다. 마음의 불씨란 영원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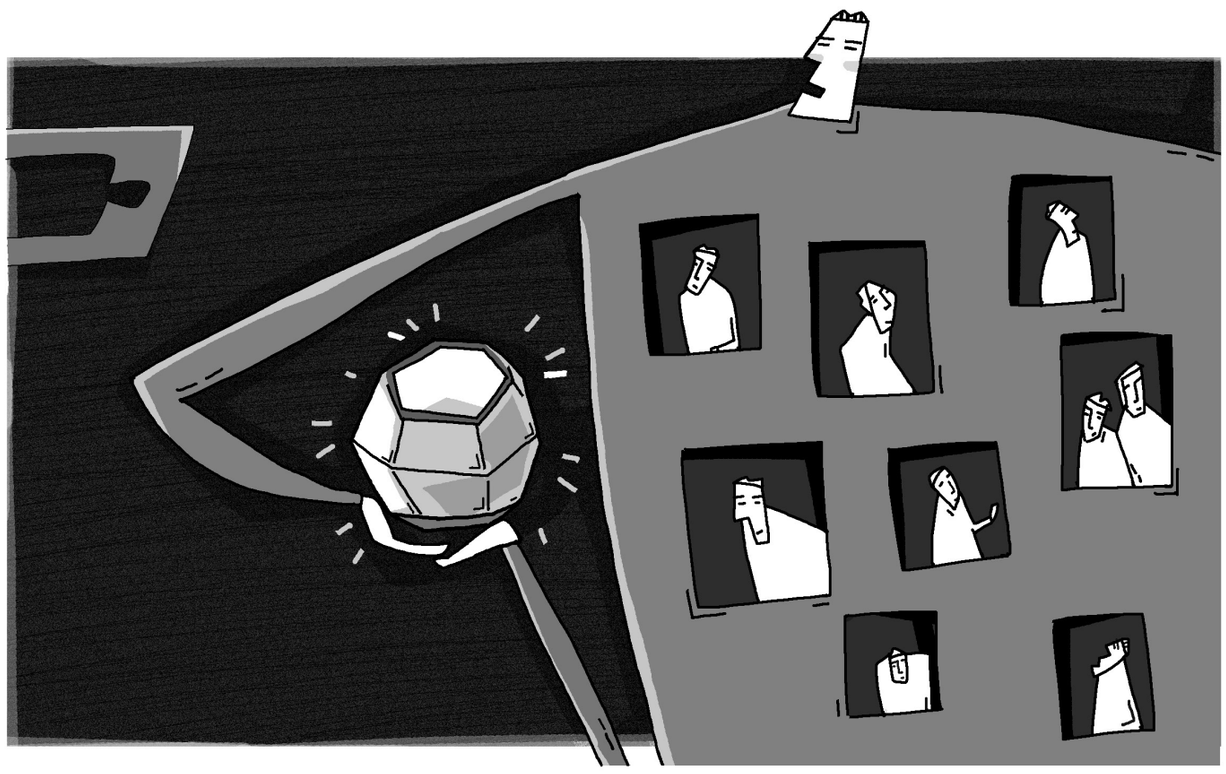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자리를 함으로써 그 모든 마음의 인연들에 의해 보람 있는 작업의 결과로 강당이 저렇게 우뚝 섰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 식구가, 이 식구에게 가도 하나요 저 식구에게 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섯 식구가 사는데 이 식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 식구에게 하나로 몰아 주고 저 식구에게 문제가 있으면 저 식구에게 하나로 몰아 주고, 어린애가 그러면 어린애로 하나로 몰아 주어서 이리로 가도 하나고 저리로 가도 하나로 돌아가게끔 하십시오. 한마음의 인등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마음을 내면 바로 불을 켜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불을 켜게 되면 다 같이 불이 들어와서 한 방이 다 밝아지도록 할 수 있는 도리를 취하십시오.

이 정신계의 발전이란 내 마음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 떠나서 이 건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으며, 어떻게 생활이 있고 부처가 있고 종교가 있고 모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을 충만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계의 모든 작용을 다 할 수가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모두 각자 오신통이 다 갖추어져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내면세계를 등한시하고 물질계 50%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걸리는 게 수도 없지만,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서로 작용을 한다면 얼마나 걸림이 없이 평온하고 여여하게 살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오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 마음의 귀로 듣는 거, 과거의 일을 아는 거,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아는 거, 가고 옴이 없이 마음이 가고 오는 거, 그것을 이름해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취직을 하려고 뇌물을 가지고 어느 사람을 찾아가서 단 둘이만 앉았는데 뇌물을 주니까 안 받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것 좀 받고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있지 않느냐?" 하더랍니다. 하하하.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을 하고, 남 보이지 않는 데 숨어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하고, 이렇게 해도 '남이 보지 않았으니까….' 이러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바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곧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면 또 어디로 퍼지느냐? 이 우주간 한마음의 법계에서 전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도 가설이 돼 있으니까요. 모두 인연 줄에 따라서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계율을 지키라고 계 정 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두가 마음의 장난인데 마음의 장난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으며 훌쩍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마음은 어디까지나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어서 오신통을 훌쩍 벗어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오신통을 훌쩍 벗어나서 누진으로 통신이 돼야 누진에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바로 바깥의 대기권에도 모두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들이고 내는 레이더망, 즉 말하자면 두뇌의 바른쪽 왼쪽에 작용을 하면서 그 핵심이 거기에서 바깥 세상과 안 세상 모두를 작용을 하게끔 자동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심성 의학도 되고 심성 과학도 되고 심성 철학도 되고 심성 천문학도 되고…, 세상만사가 다 한 가지, 마음의 핵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더하고 덜함도 없고 흘러간다 흘러온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사대로 흩어질지언정 그 마음의 핵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무식해서 맷돌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잘 들으세요. 맷돌의 아래 위에 심봉을 끼워서 돌린다면 그 맷돌의 심봉은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힘만 가하게 됩니다, 힘! 맷돌이 돌아가게끔 힘만 주는 것입니다. 맷돌이 돌아가는 대로 팥을 넣으면 팥이 갈려 나오고, 인연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라도 넣으면 갈려 나옵니다. 자기 용도에 맞게 필요한 것만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봉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 심봉에 의해서 어떻게 갈아 내느냐, 무엇을 갈아 내느냐, 어떠한 인연을 통해서 무엇을 갈아 내느냐, 나쁜 일을 갈아 내느냐 좋은 일을 갈아 내느냐, 선덕을 쌓느냐 악업을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로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심봉은 어떤 걸 갈아 내든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도에 따라서 끌어다 쓰는 대로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힘만 가해 주는 것입니다.

☞ 18면으로 계속

